제6강 내경편 신(神) I

(1교시)

§. 신(神)

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다.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것이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서 "음양불측지위신(陰陽不測之謂神)"이라고 하였다. 곧 음기와 양기가 서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신이다.
신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색(色)이나 태(態)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음기와 양기의 작용, 곧 생명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색자(色者), 신지기(神之旗)"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색이란 신을 보여주는 현상, 상징이라는 말로, 색을 통해서 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다.

§. 신(神)과 심(心)

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心)이다. 심에는 실질 장기(臟器)로서의 심과 마음의 심을 모두 포함한다.
<내경>에서는, "심(心)은 군주의 역할을 하는 관직이며 신명(神明)이 나온다"고 하였다. 생명력이 고도로 발휘된 상태가 바로 신명이며 이 신명이 나오는 곳이 심이다. 따라서 심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 심을 보호하기 위해 심포라는 장기가 있다. 심포는 심장을 대신해서 병을 받기도 하고, 또 심장의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
정기신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神)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형(形)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신(神)이 편안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신이 없으면 형(形)이 무너진다. 따라서 삼가 신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신(神)의 기초, 음식

선천적으로 받은 정을 제외하면 정이나 기나 모두 음식에서 생겨난다. 신이 정과 기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 나아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음식은 고체와 액체로 되어 있고 기체는 빠져 있다. 이는 사물의 분류가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음식이라는 말에는 대상을 가식성(可食性, 胃)인 것과 불가식성(不可食性, 肺)으로 구분한다는 기준이 전제되어 있다. 이 가식성이라는 것은 결국 몸에 대한 작용, 효과의 문제다. 예로 비정상적인 열이나 설사 등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음식은 기미(氣味)로 파악된다. 기는 온열(溫熱 / 寒熱溫凉)에 관한 것이고, 미는 오미(五味 / 酸苦甘辛鹹)에 관한 것이다. 기는 천(天)에서 얻는 것이고, 미는 지(地)에서 얻는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기미를 내는 천과 지의 온전한 덕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다.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는 기나 미에서 어떤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일반적으로 새는 양기가 더 크고 물고기는 음기가 더 크다. 따라서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기와 미가 온전하게 조화가 된 것을 먹는 것이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은 상복(常服)할 수 없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기미를 골고루 먹는 것이다.

§. 신(神)의 병

심(心)은 신(神)을 간직하고 있는데, 신(神)이 넘치면 웃음이 그치지 않고, 신이 부족하면 슬퍼한다.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모두 병이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사람의 몸에 있는 신의 이름

여기에서 말하는 신은 도교에서 말하는 신으로, 이 신은 실재 존재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응신(凝神)을 통한 신이다. 마음을 집중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관념 속에서 만들어 내는 것,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이다. 따라서 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비유는 한의학에 일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충(蟲)은 기생충이 아니라 신과 비슷한 개념이다.

§. 오장에 간직되어 있는 신

오장이 각기 간직하는 것이 있는데, 심(心)은 신(神)을 간직하고 폐는 백(魄)을 간직하고 간은 혼(魂)을 간직하고 비(脾)는 의(意, [思])를 간직하고 신(腎)은 지(志)를 간직한다.
음양의 두 정(精)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신(神)이라 한다. 이 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혼(魂)이라 한다. 정(精)과 함께 드나드는 것을 백(魄)이라 한다. 심(心) 속에 품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을 의(意)라고 한다. 의(意)가 오래 보존되는 것을 지(志)라고 한다. 멀리까지 궁리하여[慮] 사물에 잘 대처하는 것을 지(智)라 한다.
이는 한의학의 인식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 장의 기가 끊어지면 신이 밖으로 나타난다: 현몽(現夢) 사례

어떤 선비가 책 보기를 좋아하여 먹는 것을 잊었는데, 하루는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 "당신은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말라. 생각만 하면 내가 죽는다"고 하였다. 누구냐고 묻자 "나는 음식의 신[穀神]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멈추자 음식을 예전처럼 먹게 되었다.
생각, 사(思)는 비(脾)의 신이다. 따라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비기(脾氣)가 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석 유씨의 아들이 술과 여자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항상 두 여자가 옷을 곱게 입고 허리까지 보이다가 사라지곤 했다. 의사가, '이는 신(腎)의 신(神)이다. 신(腎)의 기가 끊어지면 신(神)이 집을 지킬 수 없기에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주색이 과도하여 신(腎)을 상하면 신(腎)의 신(神), 곧 신기(腎氣)가 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2교시)

§. 칠정(七情)과 신(神) (pp.408-413)

* 기뻐하는 것: <내경>에서는 "심(心)의 지(志)는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심(心)이 실(實)하면 잘 웃는다'고 하였는데, 웃으면 기뻐진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기뻐하면 양(陽)을 상한다"고 하였다. 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성내면 기를 상한다",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절제가 없거나 추위와 더위가 지나치면 생명의 근원이 든든하지 않게 된다", "기뻐하면 기가 느긋해진다. 대체로 기뻐하면 기가 조화로워지고 지(志)가 널리 미치며 영위(榮衛)가 잘 통하기 때문에 기가 느긋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황보밀은 "기쁨은 심에서 생겨나서 폐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쁨이 일정 정도를 지나치면 두 장기가 모두 상한다"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즐거우면 신(神)이 흩어져서 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기뻐하는 것과 즐거운 것이 너무 지나치면 백(魄)을 상하는데, 백은 폐의 신(神)이다"라고 하였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화내는 것: <내경>에서는 "간(肝)의 지(志)는 화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갑자기 화를 내면 음(陰)을 상한다"고 하였다. 또한 "크게 화를 내면 형기(形氣)가 끊어지고 혈(血)이 위로 올라가 뭉쳐서 사람이 기절하게 된다"고 하였다. "혈(血)이 위로 몰리고 기가 아래로 몰리면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고 화를 잘 낸다"고 하였다. 또한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올라간다", "화를 내면 기가 거꾸로 올라가는데, 심하면 피를 토하고 삭지 않은 설사를 한다"고 하였다. 왕빙의 주에서는 "화를 내면 양기가 거꾸로 오르고 간목(肝木)이 비(脾)를 억누르므로 피를 토하고 삭지 않은 설사까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담은 화 때문에 병이 든다(간담의 병이 實하면 화를 낸다)"고 하였으며, 또 "음이 양을 내보내면[음에서 양이 나오면] 화를 낸다"고 하였다. ? <의학강목>에서는 "화를 내는 근본은 음에 있는데, 양이 음에 막혀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고가 "화를 잘 내는 것은 풍열이 땅속에 묻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 것이 이 말이다. ? 옛 현인의 시에 "화를 심하게 내면 불이 타올라 화기(和氣)를 태워 자신만을 상하니 어떤 일을 당하여 더불어 다투지 마라. 그 일만 지나면 마음이 맑고 시원해지리"라고 하였다. 유공도는 양생을 잘 하여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걸음걸이가 가볍고 씩씩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방법을 묻자 "나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평생 원기(元氣)로써 감정[喜怒]을 북돋은 적이 없고, 기해(氣海)를 항상 따뜻하게 하였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삼원연수참찬서>). ? 칠정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화를 내는 것이 가장 심하다. 대개 화를 내면 간목(肝木)이 곧 비토(脾土)를 누르는데, 비가 상하면 나머지 네 개의 장(臟)도 모두 상한다(<의학강목>). ? 치노방. 향부자가루, 감초가루 각 한 냥씩을 골고루 섞어 한 번에 서 돈씩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단심).

* 근심하는 것: <내경>에서는 "폐의 지(志)는 근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근심하면 기가 가라앉는다"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풀리지 않으면 의(意)를 상하는데, 의는 비(脾)의 신(神)이다"라고 하였다. 또 "근심과 걱정을 하면 기가 막혀 돌지 않는다. 대개 근심하면 가슴이 막혀서 통하지 않고 기와 맥이 끊어져 위아래가 통하지 못한다. 기가 안에서 단단하게 막히면 대소변의 길이 치우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 골똘히 생각하는 것: <내경>에서는 "비(脾)의 지(志)는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골똘히 생각하면 기가 맺힌다"고 하였다. 왕빙의 주에서는 "마음에 걸린 것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역시 머물러 맺힌다"고 하였다. ? 황보밀은 "생각하는 것은 비(脾)에서 생겨서 심(心)에서 이루어지니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지나치면 두 개의 장(臟)이 모두 상한다"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지(志)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사[思]라 하고, 생각[思]으로 말미암아 멀리까지 따지는 것을 여(慮)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신(神)을 상하고, 신이 상하면 무서워하게 되고 정액이 흘러나와[流淫]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슬퍼하는 것: <내경>에서는 "폐의 지(志)는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심이 허하면 슬퍼하는데, 슬퍼지면 근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정과 기가 폐에 몰리면 슬퍼한다. 간이 허한데 폐기가 간으로 몰리면 슬프게 된다"고 하였고, 또 "슬퍼하면 기가 소모된다"고 하였다. 또 "폐는 숙살(肅殺)하는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지(志)는 슬픔[悲]이 된다"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슬픔이 마음을 움직이면 혼(魂)을 상한다"고 하였고, 또 "슬픔이 마음을 움직이면 [기가] 끊어져 죽게 된다"고 하였다.

* 놀라는 것: 경계류에 자세히 나온다.

* 무서워하는 것: <내경>에서는 "신(腎)의 지(志)는 무서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왕빙의 주석에서는 "위에 열이 있으면 신기(腎氣)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하였다. 또 "정기가 신에 몰리면 무서워한다. 심(心)이 허한데 신기가 거기로 몰려갔기 때문에 무서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 <영추>에서는 "족소음의 맥이 병들면 무서움을 잘 탄다"고 하였고, "두려워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정을 상한다"고 하였다.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신이 어지럽게 흩어져 거두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들이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무서워하면 기가 밑으로 처진다”고도 하였다. 왕빙의 주석에서는 “상초가 굳게 막혀서 하초에서만 기가 맴돌기 때문에 기가 [위아래로] 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장종정은 “간은 혈을 간직하는데, 혈이 부족하면 무서워한다. 대개 간과 담이 실하면 성내고 용감하며, 허하면 무서움을 잘 타고 용감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 <의학강목>에서는 “무서워하는 것과 놀라는 것이 서로 비슷하지만, 놀란다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대개 잘 놀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 잘 무서워하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곧 자기를 잡으러온다고 알고 있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무서워하지 않는다. 또 밤에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만 하고 등불이 없으면 역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공(恐)이다”라고 하였다.

§. 경계(驚悸) (p.415)

<내경>에서는 “혈이 음(陰)으로 몰리고, 기(氣)가 양(陽)으로 몰리기 때문에 놀라거나 미친다”고 하였다. ? 주진형은 “경계는 때때로 두근거리는 것인데, 혈허에는 주사안신환을 쓰고, 담이 있으면 가미정지환을 쓴다. [경계는] 혈허와 담이 원인인데, 마른 사람은 혈허가 많고 살찐 사람은 담음이 많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 역시 혈허이다”라고 하였다.

(3교시)

* 한의학의 치료법
- 침
- 뜸
- 약
- 축유(祝柚, 주문): 심리치료

§. 평범한 방법으로 놀라는 것을 치료한다. (p.425)

어떤 부인이 밤에 도둑을 만나 크게 놀란 뒤부터 무슨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넘어지고 정신을 잃었다. 의시가 심병(心病)으로 보고 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장종정이 이를 보고 “놀란 것은 양증(陽症)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무서워하는 것은 음증(陰症)으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놀라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기 때문에 생긴다. 담에서 용감함이 나오는데, 놀라고 두려워하면 담을 상한다”고 하면서 곧 [두 시녀에게 그 부인의] 양손을 잡아 의자 위에 올려놓게 하고, 바로 그 앞에 상자 하나를 놓고 말하기를 “낭자는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무로 상자를 세게 치니 그 부인이 크게 놀랐다. 조금 지난 후 다시 책상을 치니 조금 덜 놀랐다. 연달아 4, 5번을 치니 그 후에는 서서히 안정되었다. 부인이 감탄하여 “이것은 무슨 치료법입니까” 하고 물었다. 장종정이 “놀란 것은 평(平)하게 하여야 하는 데, 평하다는 것은 평범하다[常]는 말이다. 평범하게 보면 놀라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려도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놀라면 신(神)이 위로 뜬다. 상자를 아래에 놓고 쳐서 이를 내려다보게 한 것은 신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것이다(장자화)

§. 정충 (pp.426-431)

장종정은 “정충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며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면서 누군가가 당장 잡으러올 것 같은 것이다. 대개 부귀에 급급하거나 가난하고 천한 것을 슬퍼하거나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 익영탕: 생각을 지나치게 하여 심의 혈을 소모하고 상하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없는 것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을 치료한다. 황기, 당귀, 소초, 산조인, 백자인, 맥문동, 복신, 백작약, 자석영 각 한 냥, 목향, 인삼, 감초, 각 다섯 돈. 위의 약들을 썰어 일곱 돈씩 생강 다섯 쪽과 대추 두 개를 넣고 물여 달여 먹는다(<제생방>).

* 사물안신탕: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팔딱팔딱 뛰]듯이 심(心)에 혈이 없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치료한다.
당귀, 백작약, 생지황, 숙지황, 인삼, 백출, 복신, 산조인(볶은 것), 황련(볶은 것), 치자(볶은 것), 맥문동, 죽여 각 일곱 푼, 진사(따로 가루낸 것) 다섯 푼.
위의 약들을 썰어 한 번 복용할 양으로 대추 두 개, 볶은 쌀 한 줌, 오매 한 개를 넣고 물에 달여 진사가루를 타서 먹는다(<만병회춘>).

§. 건망 (p.433)

<영추>에서는 "황제가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하고 묻자 기백이 '올라가는 기가 부족하고 내려가는 기가 남아돌면 장위(腸胃)는 실(實)하고 심폐는 허하게 된다. 허하면 영위의 기가 아래에 머무르고 오래 되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므로 잘 잊어버리게 된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다. 또 "신(腎)은 [지(志)를 장(藏)하는데] 크게 화를 내서 그치지 않으면 지(志)를 상한다. 지가 상하면 앞에 하였던 말을 잘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 심장이 늘 크게 두근거리는 것 (p.443)

<의학강목>에서는 "심장이 크게 두근거리는 것은 담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을 말한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여도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서 심장이 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 어떤 주석에서는 "담담이란 물이 흔들리는 모양으로, 이는 음병(飮病)이다"라고 하였다. 수를 몰아내고 음(飮)을 없애는 약을 쓰는데, 이잔탕, 궁하탕이 바로 그런 약이다.

(4교시)

§. 전간 (p.445)

◎ 담이 횡격막 사이에 있으면 약간 어지럽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 담이 횡격막 위로 넘치면 심하게 어지러워 쓰러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를 전간이라 한다. 어른은 전이라 하고, 소아는 간이라 하는 그 내용은 같다. 또 "쓰러져 정신을 잃는 것은 모두 사기가 양분(陽分)으로 거꾸로 올라가 머리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전간은 담이라는 사기가 치받아 오른 것이다. 담사가 거꾸로 치받아 올라가면 머리의 기가 어지러워지고 머리의 기가 어지러워지면 맥의 길이 막히고 구멍이 통하지 않으므로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으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어지러워 쓰러진다. 그 병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므로 전질이라 한다"고 하였다(<의학강목>).

◎ 대개 전간은 담이 심(心)과 가슴 사이에 뭉쳐서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담이 심신(心神)을 억누르고 있는 것을 열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야 한다. 신(神)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미친 소리나 헛된 짓을 하는데 오래도록 낫지 않는 경우, 심경(心經)에 열이 쌓여 생긴 것은 심을 서늘하게 하고 열을 없애야 하며, 담이 심의 구멍을 어지러이 막은 것은 담을 없애고 심을 편안하게 하여야 하며, 강하게 토법(吐法)이나 하법(下法)을 써야 낫는다(<의학정전>).

◎ 전간은 쓰러질 때는 입에서 소리를 지르고 깨어날 때는 게거품을 물며 깨어난 후에도 다시 발작하고 멈추었다 다시 발작하기를 계속한다. 중풍, 중한, 중서, 시궐 같은 것은 쓰러질 때 소리가 없고 깨어날 때도 게거품이 없으며 다시 발작하지도 않는다(<의학강목>).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전광 (pp.464-477)

◎ 또 "너무 자주 기뻐하는 것을 전이라 하고, 너무 자주 화내는 것을 광(狂)이라 한다"고 하였으며, "음이 양을 누르지 못하면 맥이 얇고 빠르게 흐르는데 그러면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또 "옷을 추스르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며 피붙이와 남을 가리지 못하는 신명(神明)이 어지럽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어떤 스님이 갑자기 전질이 생겨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약도 효과가 없었다. 손조가 "오늘 밤 푹 자고 나면 내일모레에는 바로 낫는다"고 하면서, "짠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많이 주어 먹도록 하고 갈증이 나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과연 스님이 갈증이 났다. 손조가 따뜻한 술 한 잔[쇠뿔로 만든 잔]에 약을 타서 한 번에 먹게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술을 찾아 빈잔을 주었다. 스님이 이틀을 자고 일어났는데 예전처럼 정상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손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편안하게[安神] 할 줄만 알지, 신을 흐리게 하여 잠을 자게 하는 방법은 모른다, 이것은 <영원방>에 있는 진사산인데, 사람들이 쓸 줄을 모를 뿐이다"라고 하였다(<의학강목>).

* 크게 설사시켜 광(狂)을 고친다

어떤 사람이 양궐로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욕을 해대고 마구 노래를 부르다가는 울고, 여섯 부위의 맥이 힘이 없고 몸의 겉이 얼음장 같았는데, 발작하면 울부짖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역로>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낫는다"고 하여 음식을 주지 않고 또 대승기탕으로 설사시켰다. 다섯에서 일곱 차례 설사를 하여 대변 몇 말을 보자 몸이 따뜻해지고 맥이 살아나 병이 나았다(<의학강목>). ? 한 노인이 부역을 크게 걱정스러워 하다가 갑자기 광증(狂症)이 생기고 입과 코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두 손으로 긁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맥은 모두 끈목처럼 홍대(洪大)하였다. 장종정이 진단하여 말하기를 "간은 꾀하는 것을 주관하고, 담은 결단하는 것을 주관한다. 부역은 갑자기 닥치고 부역 대신 낼 돈이 없어서 간은 꾀를 내지만 담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굽히기만 하고 펼 수가 없다. 화난 것이 풀리지 않으므로 심화(心火)가 가득 차 양명금(陽明金)을 타고 오르게 된다. 위(胃)는 원래 토(土)에 속하고 간은 목(木)에 속하며 담은 상화(相火)에 속하는데, 화(火)가 목기(木氣)를 따라 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광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자를 따뜻한 방에 들어가 3번 땀을 줄줄 흘리게 하고 조위승기탕으로 20여 번 크게 설사시켰다. 핏물과 어혈이 섞인 설사가 몇 되 나오고 다음날 나았다. 그런 다음 통성산으로 조리시켰다(<유문사친>).

§. 탈영(脫營)과 실정(失精) (p.479)

<내경>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천해져 생긴 병을 탈영이라 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져 생긴 병을 실정이라 한다. 사기에 맞지 않아도 병이 안에서 생기어 몸이 날로 마르고 기가 허해지고 정이 없어진다. 병이 깊어지면 기가 없어져 으슬으슬하고 자주 놀란다. 병이 심하면 밖으로는 위기(衛氣)가 줄어들고 안으로는 영기(榮氣)가 마른다"고 하였다. 왕빙의 주석에서는 "혈(血)은 걱정하면 끊고, 기는 슬퍼하면 줄어든다. 그래서 밖으로 위기가 줄어들고 안으로 영기가 마른다"고 하였다.

◎ 이러한 병에는 밥맛이 없고 정신이 나른하고 몸이 마르는데, 내복약으로는 교감단을 먹고, 외용약으로는 향염산으로 이[齒]를 문지른다(<의학입문>).

◎ 천왕보심단, 가감진심단, 승양순기탕, 청심보혈탕을 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다섯 지(志)가 서로 이겨서 치료가 된다. (pp.480-483)

<내경>에서는 "간의 지(志)는 화를 내는 것이다. 지나치게 화를 내면 간을 상하는데, 슬퍼하는 것[金]이 화내는 것[木]을 이긴다. 심의 지는 기뻐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기뻐하면 심을 상하는데, 두려워하는 것[水]이 기뻐하는 것[火]을 이긴다. 비(脾)의 지는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다. 골똘히 생각하면 비를 상하는데, 화내는 것[木]이 생각하는 것[土]를 이긴다. 폐의 지는 걱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걱정하면 폐를 상하는데, 기뻐하는 것[火]이 걱정하는 것[金]을 이긴다. 신의 지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신을 상하는데, 생각하는 것[土]이 두려워하는 것[水]을 이긴다"고 하였다.

◎ 주진형은 "다섯 가지 지(志)의 화(火)가 뭉쳐 담을 만들어 전광이 되면 인간 관계[人事]로써 다스려야 한다. 지나치게 화를 내어 간을 상하면 걱정하게 하여 누르고 두려워하게 하여 풀어준다. 지나치게 좋아하여 심을 상하면 두려워하게 하여 누르고 화내게 하여 풀어준다. 골똘히 생각하여 비를 상하면 화내게 하여 누르고 좋아하게 하여 풀어준다. 지나치게 걱정하여 폐를 상하면 좋아하게 하여 누르고 화내게 하여 풀어준다. 지나치게 놀라 담을 상하면 걱정하게 하여 누르고 두려워하게 하여 풀어준다. 지나치게 슬퍼하여 심포(心包)를 상하면 두려워하게 하여 누르고 화내게 하여 풀어준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어떤 부인이 배가 고파도 먹을 생각을 않고 늘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주위 사람을 죽이려 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그치지 않아 여러 의사가 치료를 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장종정이 이를 보고 "이것은 약으로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기생 두 명을 울긋불긋하게 화장하여 몸종으로 삼자 부인이 크게 웃었다. 다음날 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자 크게 웃었다. 그리고 잘 먹는 부인을 늘 양 옆에 두고 맛있다고 자랑하게 하였더니 환자가 음식을 찾아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였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화내는 것이 줄고 먹는 양이 늘더니 약을 쓰지 않고도 나았다. 후에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의사는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귀하게 여기는데, 재능이 없으면 어찌 무궁한 병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자화).

◎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한 뒤 남편이 장사를 떠나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밥을 먹지 않고 멍청하게 누워만 있는데, 다른 증상은 없었으며 대개 방 안쪽을 향하여 앉아 있기만 하였다. 이것은 지나치게 남편을 그리워하여[思想] 기가 맺힌 것으로, 약만 가지고는 낫지 않으니 기뻐할 일이 생겨야 풀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게 하여야 한다. 내가 가서 충동질하니 그 부인이 크게 화를 내면서 3시간 정도를 울었다. 그런 다음 부모에게 달래주라 하고 약 한 첩을 먹이자 밥을 달라고 하였다. 주진형이 "병은 비록 나았지만 반드시 기뻐할 일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괜찮지만 다시 병이 생긴다"고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고 있다고 속이니 과연 병이 다시 생기지 않았다. 비(脾)는 생각[思]을 주관하므로 생각이 지나치면 비기(脾氣)가 맺혀 먹지 않게 되고, 화내는 것은 간목(肝木)에 속하므로 화를 내면 목기(木氣)가 왕성하게 올라가 비기를 쳐서 열어준 것이다(단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